

SOC

- , , -

이 연구는 SOC 전략과 관련된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과 성에 따라 SOC 전략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동시에 애착, 성격특성, SOC 전략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애착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고 성격특성이 다시 SOC 전략에 영향을 주는 관계모형을 가정하였다.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대학생(100명)과 중년 남녀(100명)에게 SOC 질문지가 실시되었으며, 애착, 성격특성, SOC 전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505명)만을 다시 표집하여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IPPA와 NEO-PI 성격질문지 및 SOC 질문지가 함께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SOC 전략 중 의도적 선택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 및 최적화 전략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보상요인에서는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또한 남녀를 구분하여 애착과 성격특성, 애착과 SOC 전략 그리고 성격과 SOC 전략의 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의 가정대로 애착은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고 성격특성은 다시 SOC 전략에 영향을 주는 애착→성격특성→SOC전략의 관계가 확인될 수 있었다.

주요어: 애착, 성격특성, SOC 전략, 발달적 조절

P. Baltes와 M. Baltes(1990)가 제안하고 Baltes 등(Freund & Baltes, 2002, 1998; 등, 1999)에 의해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SOC 전략 혹은 SOC 이론은 성공적 발달 혹은 적응적 발달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의 적응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선택(Selection), 최적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이라는 영어단어의 첫글자를 딴 SOC는 발달적 조절의 세가지 중심적 과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SOC 전략이란 목표를 선택하고 (선택), 선택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표

관련적 수단이나 자원을 획득하고 통합하고 적용하며(최적화), 목표관련적 수단에서의 상실이나 감퇴가 일어날 때 기능의 유지나 변경을 위하여 부가적 자원이나 수단을 활용(보상)하는 인생관리전략을 의미한다. Baltes 등에 의하면, 각 개인은 전생애 동안 발달의 상이한 영역에 걸쳐서 그리고 미세한 발달수준에서부터 거대수준의 발달까지 이러한 세가지 과정의 발달적 조절을 이룸으로써 적응적 발달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SOC 전략은 어느 연령에서나 어떤 문제에나 적용되는 인생관리전략으로 이 전략의 성공적 사용은 성공적 발달 혹은 적응적 발달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발달의 궁극적 목적이 성공적 적응이나 적응적 발달에 있다고 볼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SOC 전략은 전생애 발달심리학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SOC 전략의 발달과 관련된 몇가지 개인차 변인들을 확인하고 SOC 전략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목표선택, 목표추구 그리고 목표유지/변경의 과정에 해당하는 SOC 전략은 곧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며 실패나 상실에 직면하여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Lerner 등, 2001; Lerner, 1998; Wapner & Demick, 1998). 예를 들면 아동기나 청년기에서의 SOC 전략은 성인초기나 중기 혹은 후기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청년기와 성인초기는 성인후기에 사용되는 전략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SOC 전략은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할 때 출현한다고 가정된다(Baltes & Carstensen, 1996). SOC의 연령궤도와 관련하여, 두가지

상이한 가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성인기 동안 연령증가와 함께 각 개인은 그들의 축적된 인생경험 때문에 점점 더 유능하게 SOC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Baltes & Baltes, 1990). 또 다른 가설은 SOC 전략 자체의 사용은 자원의존적이고 노력이 드는 일이므로 자원과 가소성에서의 연령관련적 상실 때문에, 노화는 SOC 전략의 사용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Freund와 Baltes(2002)는 연령은 SOC 전략 요인 중 의도적 선택(ES)과 정적 상관이 있고 상실에 기초한 선택과 최적화 및 보상과는 역전된 U자형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의도적 선택을 제외하고 SOC 전략의 모든 요인들은 성인중기(43-67세)에 절정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SOC 전략의 사용에서 성차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연령 외에도 개인의 SOC 전략과 관련된 변인으로 애착과 개인의 성격특성이 있다. 우선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3)은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애착양식의 소유자들보다 SOC 질문지의 네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애착과 SOC 전략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은 SOC 질문지의 네가지 하위요인들 즉, 의도적 선택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 최적화 및 보상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은 네가지 하위요인 중 최적화와 보상요인에서 그리고 친구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은 보상요인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혀 애착인물에 따른 영향력에서 상대적인 차이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개인의 성격특성 또한 SOC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Freund와 Baltes (2002)는 NEO 성격검사(NEO-Personality Inventory: NEO-PI)를 사용하여 SOC 전략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2차에 걸친 연구에서 호감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SOC 전략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높은 동기를 갖는 사람들의 전형적 특성인 성실성은 SOC 전략의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의도적 선택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 및 최적화와는 부적 상관을 이루고 보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인의 애착양식이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성격특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 그 증거로서 애착과 성격특성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Shaver와 Brennan(1992)는 Hazan과 Shaver (1987)의 3범주의 애착양식척도를 사용하여 성인의 애착양식을 측정하고 NEO 성격검사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정서적 불안정성(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호감성(agreeableness) 및 성실성 (conscientiousness)의 다섯가지 성격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 검사에서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불안정한 애착양식의 소유자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더 높은 수준의 외향성을 지니고 있었고 회피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보다 더 동조적이었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성실성 척도에서는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두 개의 불안정한 애착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4 범주의 애착양식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을 측정하고 다섯가지 성격특성과의 관

계를 연구한 장휘숙(2001)은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보다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더 낮고 더 강한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은 다섯가지 성격특성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남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남녀 대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남학생의 성실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개인의 성격특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힌 Kerns와 Stevens(1996)의 연구와 불안정한 애착양식의 소유자들이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보다 우울과 불안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Hazan과 Shaver(1990)의 연구 모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애착과 개인의 성격특성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한다. 이와같이 개인의 성격특성은 SOC 전략과 유의한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착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애착은 개인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다시 SOC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SOC 전략의 사용과 관련된 변인으로 연령과 성에 따라 SOC 전략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애착, 성격특성 그리고 SOC 전략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비록 Freund와 Baltes (2002)는 SOC 전략에서 성차는 없다고 보고하고 중년기가 의도적 선택을 제외한 상실에 기초한 선택, 최적화 및 보상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라고 주장하였으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 1-2학년 남녀 학생들과 50대의 중년기 성인남녀를 표집하고 Baltes 등(1999)이 제작한 SOC 질문지를 실시하여 SOC 전략 사용에서의 연령차와 성차를 검증하려고 한다. 또한 애착과 성격, 성격과 SOC 전략 및 애착과 SOC 전략간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애착, 성격특성 그리고 SOC 전략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 양육자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내적 작동모델로 구조화되고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통합된다는 Bowlby(1979)의 주장을 기초로, 애착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다시 SOC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경로모델을 가정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만을 다시 표집하고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며 5요인 모델(Five-Factor Model)의 차원척도인 NEO 성격검사(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를 사용하여 개인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동시에 SOC 질문지도 함께 실시하여 애착-성격특성-SOC 전략의 관계를 규명한다. 장휘숙(2003)의 연구에서 친구에 대한 애착은 상실에 기초한 선택, 최적화 및 보상요인과 유의한 상관관이 있었고 회귀분석 결과 보상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함께 친구에 대한 애착도 함께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

1차적으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대학 1, 2학년 남녀 학생들과 50대의 성인남녀가 연

구대상자로 표집되었고 SOC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한 최종분석 대상자는 대학생 100명(남학생: 52명, 여학생: 48명)과 50대의 성인 100명(남성: 52명, 여성: 48)이었고 그들의 평균연령은 남자 대학생 21.04세($SD=2.41$), 여자 대학생 19.52세($SD=1.22$), 성인 남성 53.8세($SD=2.50$), 성인 여성 52.25세($SD=2.44$)였다. 2차적으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대학 1, 2학년 학생들에게 IPPA와 NEO-PI 성격검사 그리고 SOC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으므로 대학생만을 다시 표집하였으며,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부재한 학생이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한 학생 혹은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들은 제외한 최종분석대상자는 505명(남학생: 248명, 여학생 257명)이었다.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남학생 21.78세($SD=2.0$) 그리고 여학생 19.81세($SD=1.32$)였다. 1차 조사에서의 검사실시 시간은 대학생은 약 15-20분 그리고 성인은 30-35분이 소요되었고 2차 조사에서의 검사실시 시간은 약 40-45분이 소요되었다. 1차검사는 2002년 겨울방학 동안 그리고 2차검사는 2003년 봄학기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다.

측정 도구

부모 및 동년배 애착척도(IPPA)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원래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28개의 부모문항과 25개의 동년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해야 하므로 Paterson, Field 그리고 Pryor

(1994)의 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원래의 IPPA를 활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였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는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해 높은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Cronbach α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 .91, 아버지에 대한 애착 .92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 .91이었다.

NEO-PI 성격검사

원래의 NEO-PI 성격검사는 Costa와 McCrae (198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다섯 개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인 정서적 불안정성(neuroticism),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외향성(extraversion),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에 대한 수용정도를 의미하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타인에 대한 이타적 관심이나 관대한 감정에 해당하는 호감성(agreeableness) 그리고 목표에 전념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높은 동기를 갖는 사람의 특성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NEO-PI의 1990년도 판에 기초한 노동부(2000)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제작한 직업선택도검사(L형) 중 성격검사를 사용하였다. 28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이 검사는 전체 18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3개 문항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이고 3개의 문항은 부주의 척도이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SOC 질문지

Baltes와 Baltes, Freund 그리고 Lang(1999)이 개발한 SOC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의도적 선택(ES)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LBS), 최적화(O) 및 보상(C)의 네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이 질문지는 각 하위요인마다 12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체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두 개의 진술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강제선택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두사람의 허구의 개인 A와 B의 인생관리행동 중 어느 것이 자신을 더 잘 기술하는가를 결정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선행연구들(Stange, Freund, & Baltes, 2000; Baltes 등, 1999)은 강제선택 양식이 단일문항 양식보다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이 낮고 인생의 목적과 더 높은 상관을 보여 더 바람직한 질문양식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개인의 SOC 점수는 바람직한 전략일 때는 2점, 바람직하지 못한 전략일 때는 1점으로 계산되었고, 네가지 하위요인 점수는 물론 전체점수로 합산될 수도 있다.

의도적 선택에서의 높은 점수는 개인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집중할 제한된 수의 목표를 선택하며 목표의 중요성에 따라 위계를 구축하는 행동에 응답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사하게 상실에 기초한 선택에서의 높은 점수는 목표관련적 수단에서의 상실에 직면한 개인이 가장 중요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덜 중요한 목표를 포기함으로써 목표위계를 재구성하고 상실이 일어나기 이전의 목표수준이나 목표위계를 유지하기보다 포부수준을 조절하는 것을 선호한

표 1. 연령과 성에 따른 SOC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SOC 전략	중년기 성인		대학생	
	남	여	남	여
의도적 선택	19.57(3.80)	19.81(3.05)	18.73(3.47)	18.56(2.93)
상실에 기초한 선택	20.73(2.89)	19.85(2.54)	21.28(2.37)	21.56(1.92)
최적화	19.82(2.28)	18.70(2.99)	18.32(2.76)	18.39(2.31)
보상	20.86(3.32)	19.08(2.93)	20.40(3.21)	22.00(1.67)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적화에서의 높은 점수는 개인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술을 획득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투자하며 목표추구행동을 지지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높은 보상 점수는 수단의 상실이나 감소에 직면하여 대안적 혹은 대리적 수단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지지하거나 선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계산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의도적 선택 .80, 상실에 기초한 선택 .76, 최적화 .78 그리고 보상 .77이었다.

선택에서는 중년기 성인들이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상실에 기초한 선택에서는 대학생들이 중년기 성인들보다 그리고 최적화에서는 중년기 성인들이 대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성인들이 대학생들보다 의도적 선택과 최적화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목표관련적 수단을 상실했을 때 목표를 조절하고 목표위계를 다시 구성하는 능력인 상실에 기초한 선택에서는 대학생들이 중년기 성인들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SOC 전략의 연령차와 성차

연령과 성에 따라 SOC 전략의 사용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SOC 전략의 4가지 하위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연령과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결과, SOC 전략의 4가지 하위요인 즉 의도적 선택($F_{1,196}=4.89, p<.05$)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F_{1,196}=10.51, p<.001$), 최적화 ($F_{1,196}=6.04, p<.05$) 및 보상요인($F_{1,196}=9.05, p<.01$)에서 연령에 대한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즉 의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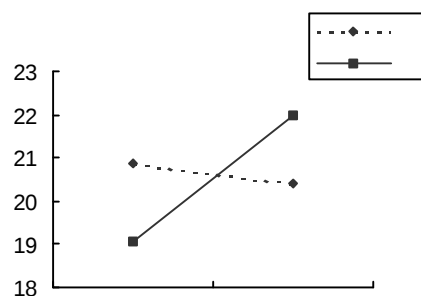


그림 1: 보상요인에서의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

그러나 보상 요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령과 성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_{1,196}=17.14$,

$p<.001$)가 있었다. 보상요인에서 나타난 상호 작용 효과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과 중년여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중년남성들은 중년여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이나 중년여성보다 목표달성의 수단이나 감소에 직면하여 대안적 수단을 찾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보상 전략을 지니고 있으며, 남녀 대학생과 중년남녀의 네 집단 중 중년여성들이 가장 저조한 보상전략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애착, 성격특성, SOC 전략의 관계

애착과 성격특성 그리고 SOC 전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애착과 성격특성, 애착과 SOC 전략 그리고 성격특성과 SOC 전략간의 상관을 계산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휘숙(2001)은 물론 Shaver와 Brennan (1992)은 성격특성에서 성차가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Kerns와 Stevens (1996)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개인의 성격특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후의 모든 분석은 남녀를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남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은 정서적 불안정성($r=-.353$, $p<.001$; $r=-.328$, $p<.001$; $r=-.306$,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루고 외향성($r=.278$, $p<.001$; $r=.314$, $p<.001$; $r=.414$, $p<.001$) 및 성실성($r=.271$, $p<.001$; $r=.363$, $p<.001$; $r=.258$,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친구에 대

한 애착만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r=.220$, $p<.001$) 및 호감성($r=.23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은 정서적 불안정성($r=-.355$, $p<.001$; $r=-.324$, $p<.001$; $r=-.255$,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외향성($r=.345$, $p<.001$; $r=.349$, $p<.001$; $r=.488$, $p<.001$) 및 호감성($r=.226$, $p<.001$; $r=.202$, $p<.001$; $r=.356$,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만이 성실성($r=.317$, $p<.001$; $r=.24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애착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r=.123$, $p<.05$; $r=.139$,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남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3인에 대한 애착이 높으면 정서적 불안정성은 낮아지는 반면,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및 성실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3인의 애착인물과 다섯가지 성격특성간의 상관패턴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들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만 친구에 대한 애착도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섯가지 성격특성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3인에 대한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표 2와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모두 유의한 설명량을 가짐으로써 3인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더 낮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향성과 성실성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표 2. 남녀 대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에 따른 성격특성의 회귀분석결과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남학생	어머니애착	-0.17**	0.06	0.01	0.04	0.09
	아버지애착	-0.15*	0.17**	-0.02	-0.08	0.28***
	친 구애착	-0.25***	0.33***	0.21**	0.26***	0.13*
	R ²	.19	.21	.04	.06	.16
여학생	어머니애착	-0.20**	0.09	0.11	0.05	0.30***
	아버지애착	-0.16*	0.16*	-0.05	0.03	0.13
	친 구애착	-0.06	0.37***	0.11	0.31***	-0.10
	R ²	.13	.26	.02	.12	.13

* $p < .05$, ** $p < .01$, *** $p < .001$

애착이 유의한 설명량을 가짐으로써 아버지와 친구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남자 대학생들이 높은 외향성과 성실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호감성은 친구에 대한 애착만이 유의한 설명량을 보임으로써 친구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는 남자 대학생들이 경험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호감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남자 대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 및 성실성에 영향을 주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다섯가지 성격특성 모두에 영향을 줌으로써 친구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남자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었다.

여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성실성에 영향을 주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에 영향을 주며 친구에 대한 애착은 외향성과 호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남

학생들과는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여학생들이 더 낮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여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더 큰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향성에서는 아버지와 친구가 유의한 영향을 주고 특히 남학생들과 유사하게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 때 여학생들은 더 큰 호감성과 외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실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만이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냄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애착만이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낸 남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종합하면 남자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은 부모보다 친구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여학생들은 부모와 친구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애착과 SOC 전략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SOC 전략의 모든 하위요인들 즉 의도적

선택($r=.217, p<.001$; $r=.163, p<.01$), 상실에 기초한 선택($r=.147, p<.01$; $r=.128, p<.05$), 최적화($r=.219, p<.001$; $r=.258, p<.001$) 및 보상요인($r=.244, p<.001$; $r=.27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상실에 기초한 선택($r=.116, p<.05$) 및 보상요인($r=.27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여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의도적 선택($r=.212, p<.001$), 최적화($r=.298, p<.001$) 및 보상요인($r=.26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여학생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SOC 전략의 모든 하위요인들(의도적 선택 $r=.173, p<.01$; 상실에 기초한 선택 $r=.124, p<.05$; 최적화 $r=.312, p<.001$; 보상 $r=.25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보상요인($r=.229, p<.001$)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남녀 대학생들이 더 효과적인 SOC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네가지 SOC 전략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

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 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같이, 남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의도적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은 최적화와 보상요인에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보상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의도적 선택과 최적화 및 보상요인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은 최적화와 보상요인에 유의한 설명량을 보이고 있으나 친구에 대한 애착은 SOC 전략의 어떤 요인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남학생들은 SOC 전략의 사용에서 어머니나 친구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여학생들은 어머니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친구는 SOC 전략의 사용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SOC 전략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

표 3. 남녀 대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에 따른 SOC 전략의 회귀분석결과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의도적 선택	상실에 기초한 선택	최적화	보상
남학생	어머니애착	0.17**	0.09	0.12	0.11
	아버지애착	0.07	0.06	0.19**	0.15*
	친 구애착	0.02	0.06	0.01	0.19**
	R ²	.05	.03	.07	.12
여학생	어머니애착	0.19**	0.05	0.19**	0.14*
	아버지애착	0.09	0.09	0.22***	0.13*
	친 구애착	-0.09	-0.01	-0.05	0.11
	R ²	.05	.01	.12	.09

우 정서적 불안정성은 SOC 전략의 모든 하위요인(의도적 선택 $r=-.272$, $p<.001$; 상실에 기초한 선택 $r=-.151$, $p<.05$; 최적화 $r=-.310$, $p<.001$; 보상 $r=-.181$,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외향성은 최적화($r=.187$, $p<.001$) 및 보상요인($r=.292$, $p<.001$)과 정적 상관을, 호감성은 보상요인($r=.112$, $p<.05$)과 정적 상관을 그리고 성실성은 네가지 하위요인(의도적 선택 $r=.482$, $p<.001$; 상실에 기초한 선택 $r=.351$, $p<.001$; 최적화 $r=.580$, $p<.001$; 보상 $r=.366$, $p<.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정서적 불안정성은 SOC 전략의 모든 하위요인들(의도적 선택 $r=-.343$, $p<.001$; 상실에 기초한 선택 $r=-.203$, $p<.001$; 최적화 $r=-.334$, $p<.001$; 보상 $r=-.148$,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성실성(의도적 선택 $r=.495$, $p<.001$; 상실에 기초한 선택 $r=.437$, $p<.001$; 최적화 $r=.684$, $p<.001$; 보상 $r=.396$,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외향성은 상실에 기초한 선택($r=.197$, $p<.001$)과 최적화($r=.264$, $p<.001$) 및 보상요인($r=.30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r=.154$, $p<.01$)과 호감성($r=.144$, $p<.05$)은 최적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남학생들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은 남녀 대학생들과 높은 성실성을 갖는 남녀 대학생들은 SOC 전략의 네가지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네가지 SOC 전략에 미치는 다섯가지 성격 특성들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남녀 학생들의 다섯가지 성격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같이, 남학생들의 외향성은 보상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성실성은 SOC 전략의 모든 하위요인들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과는

표 4. 남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따른 SOC 전략의 회귀분석 결과(표준화된 회귀계수: β)

		의도적 선택	상실에 기초한 선택	최적화	보상
남학생	정서적 불안정성	-0.08	-0.05	-0.03	0.06
	외향성	0.07	0.06	-0.08	0.18*
	경험에대한개방성	0.00	0.04	0.02	0.07
	호감성	0.00	0.03	0.04	0.08
	성실성	0.51***	0.36***	0.58***	0.30***
	R ²	.25	.12	.31	.13
여학생	정서적 불안정성	-0.20***	-0.02	-0.02	0.07
	외향성	-0.06	0.16**	0.08	0.27***
	경험에대한개방성	0.04	0.05	0.08	0.11
	호감성	0.02	0.01	0.08	0.02
	성실성	0.43***	0.40***	0.67***	0.38***
	R ²	.28	.20	.49	.21

달리 정서적 불안정성이 의도적 선택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외향성은 상실에 기초한 선택과 보상요인을 그리고 성실성은 SOC 전략의 모든 하위요인들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격특성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은 남녀 대학생들의 SOC 전략의 사용과 가장 큰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호감성은 SOC 전략의 사용과는 관련이 없는 성격특성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외향성은 남학생들의 보상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주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보상전략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성격특성이었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여학생들의 의도적 선택에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성격특성이 남학생들의 성격특성보다 SOC 전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가정한, 애착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고 성격은 다시 SOC 전략에 영향을 주는 관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이라는 이론변인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이 측정변인으로 사용되었고, 성격이라는 이론변인에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이 측정변인으로 그리고 SOC라는 이론변인을 위해서는 의도적 선택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 최적화 및 보상요인이 측정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애착 → 성격특성 → SOC 전략의 관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부합도 지수를 계산한 결과, 남학생들의 기초부합도 지수(GFI)는 .97, 수정부합도 지수(AFFI) .93, 표준부합도지수(NFI) .96 그리고 비표준부합도 지수(NNFI)는 .88이었고,

여학생들의 기초부합도 지수(GFI)는 .95, 수정부합도 지수(AFFI) .91, 표준부합도지수(NFI) .92 그리고 비표준부합도 지수(NNFI)는 .90으로서 모델의 적합도를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들의 경우 성격에 대한 애착의 설명량이 53%이고 SOC 전략에 대한 성격의 설명량은 42%였으나 여학생들의 경우 그것은 각각 30%와 79%로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남녀 대학생 모두 애착이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고 성격특성은 다시 SOC 전략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영향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SOC 전략의 사용과 관련된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령과 성에 따라 SOC 전략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애착, 성격특성 그리고 SOC 전략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애착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고 성격특성이 다시 SOC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관계모형을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대학 1, 2학년 남녀 대학생들과 50대 성인남녀를 표집하고 Baltes 등(1999)이 개발한 SOC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애착과 성격특성 및 SOC 전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IPPA(Paterson 등, 1994)를 실시하였고 NEO-PI 성격질문지(노동부, 2000)와 SOC 질문지도 함께 실시되었다. 연령과 성의 2원변량분석 결과, SOC 전략의 하위요인 중 의도적 선택과 상실에 기초한 선택 및 최적화에서는 유의한 연령차

이가 있었고 보상요인에서는 연령과 성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중년기 성인들은 대학생들보다 더 효과적인 의도적 선택과 최적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대학생들은 중년기 성인보다 더 효과적인 상실에 기초한 선택전략을 사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이나 중년기 성인들보다 더 높은 보상 점수를 얻어 가장 효과적인 보상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었고 중년 여성들은 중년 남성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보상점수를 얻어 가장 저조한 보상전략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밝혀졌다.

애착과 성격특성 및 SOC 전략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남녀를 구분하여 먼저 애착과 성격특성, 애착과 SOC 전략 그리고 성격특성과 SOC 전략간의 상관을 계산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들의 성격특성은 어머니와 아버지보다 친구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여학생들은 3인의 애착인물 모두로부터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SOC 전략 중 의도적 선택에 영향을 주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최적화와 보상요인에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보상요인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의도적 선택과 최적화 및 보상요인에 영향을 주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최적화와 보상요인에 영향을 주며 친구는 여자 대학생의 SOC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함께 다섯가지 성격특성 중 남녀 대학생들의 성실성은 SOC 전략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성격요인이었고 외향성은 남학생에서는 보상요인에 그리고 여학생에서는 상실에 기초한 선택과 보상요인에 영향을 주는 성격특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의 가정대로 애착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고 성격특성이 다시 SOC 전략에 영향을 주는 애착 → 성격특성 → SOC 전략의 관계가 확인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중년기 성인들은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의도적 선택과 최적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Freund와 Baltes (2002) 및 Baltes와 Baltes(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상실에 기초한 선택에서는 대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얻고 보상요인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을 뿐아니라 중년 여성들은 가장 저조한 보상전략을 지니고 있어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Freund와 Baltes(2002)는 의도적 선택은 성인후기까지 발달하고 상실에 기초한 선택과 최적화 및 보상요인에서는 역전된 U자형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세가지 전략은 중년기 동안 절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 감퇴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 상실에 기초한 선택은 목표관련적 수단을 상실했을 때 이루어지는 선택으로 개인의 목표체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에 해당하며, 보상은 구체적인 목표관련적 수단들이 더 이상 활용가능하지 않을 때 대안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인생경험이 더 많은 중년기 성인들이 대학생들보다 더 유능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성인중기는 지혜와 판단력이 절정에 도달하며 정력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시기라는 Levinson 등(1978)의 이론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나타난 중년기 성인들의 저조한 상실에 기초한 선택전략과 특히 중년여성들의 저조한 보상전략은 독일과 한국이라는 문화적 차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변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현재의 50대는 대학생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아니라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중년기 성인들의 목표체계의 재구성 능력이나 대안적 수단의 사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성 외에도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포함되어야함은 물론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과 같은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생활양식이나 한국사회가 갖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포함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만 SOC 전략 사용에서의 연령집단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중년기 성인들만을 비교하였으나 SOC 전략은 성공적응을 이루기 위해 어느 연령에서나 어떤 문제이나 적용되는 인생관리전략이므로 더 다양한 연령집단을 포함해야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SOC 전략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애착이 성격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고 남녀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Shaver와 Brennan(1992)의 연구나 Kerns와 Stevens (1996)의 연구는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과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장휘숙(2001)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친구에 대한 애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머

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만을 연구한 장휘숙(2001)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여학생들의 친구에 대한 애착을 제외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높은 애착은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관련되어 있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친구에 대한 애착이 남자 대학생들의 다섯가지 성격특성 모두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호감성에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우정발달에서의 남녀 차이를 가정해보게 하였다. 즉 남자 대학생들은 여자 대학생들보다 우정형성 능력의 발달이 더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장휘숙, 1999; Epstein, 1983), 청년후기인 대학연령에서도 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여학생들은 청년후기에 이르면 친구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성격특성에 미치는 친구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성격특성 중 SOC 전략의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성실성(Freund & Baltes, 2002)이 남학생들은 동성인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여학생들은 동성인 어머니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Kerns와 Stevens (199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전자전-모전여전의 통념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대한 애착과 SOC 전략과의 관계에 관한 이 연구의 결과 역시 장휘숙(2003)의 결과와 유사하나 이 연구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애착과 성격특성과의 관계에서와 동일하게,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은 어머니나 친구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여학생들

은 어머니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친구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외향성은 남학생의 보상요인과 여학생의 상실에 기초한 선택과 보상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성실성은 남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SOC 전략의 모든 하위요인들을 유의하게 설명함으로써 Freund와 Baltes(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높은 성실성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바람직한 SOC 전략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성격특성이었고 높은 외향성은 SOC 전략의 일부 요인에 영향을 주는 성격특성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의 성격특성 중 성실성이 성공적 적응 혹은 적응적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동시에 남성의 성실성은 주로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의해 형성되고 여성의 성실성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 연구가 횡단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친구에 대한 애착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다시 SOC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애착 → 성격특성 → SOC 전략의 관계모델이 확인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성격특성에 대한 애착의 설명량과 SOC 전략에 대한 성격의 설명량에서 나타난 남녀간의 차이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친구에 대한 애착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성격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으므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인생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이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구조화되고 그것은 일생동안의 관계형성방식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문제해결양식에 영향을 준다는 Bowlby(1979)의 주장을 입증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기여일 수 있다.

- 노동부 (2000). 직업선호도검사 실시요강.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장휘숙 (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장휘숙 (2001). 애착과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05-119.
- 장휘숙(2003). 애착과 SOC 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3), 1-1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 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Baltes, M. M., Freund, A. M., & Lang, F. R. (1999). The measure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SOC) by self-report.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 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M. M., & Carstensen, L. L. (1996). The process of successful aging. *Aging and Society*, 16, 397-422.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Tavistock, New York.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Epstein, J. L. (1983). Examining theories of adolescent friendships. In J. L. Epstein & N. L. Karweit (Eds.), *Friends in school*. NY: Academic Press.
- Freund, A. M., & Baltes, P. B. (1998).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strategies of life-management: Correlations with subjective indicators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13, 531-543.
- Freund, A. M., & Baltes, P. B. (2002). Life-management strategies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Measurement by self-report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642-662.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Shaver, P. 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3), 323-342.
- Lerner, R. M. (Ed.) (1998). *The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New York: Wiley.
- Lerner, R. M., Freund, A. M., De Stefanis, I., & Habermas, T. (2001). The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model as a frame for understanding developmental regulation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44, 29-50.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H., & McKee, B. (1978). *The seasons of Men's life*. New York: Knopf.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5), 536-545.
- Stange, A., Freund, A. M., & Baltes, P. B. (2000). *To SOC or not to SOC: Two studies investigating a questionnaire measuring processes of adaptive development*.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42nd congress of the German Society of Psychology, Jena Germany.
- Wapner, S., & Demick, J. (1998). Developmental analysis: A holistic, developmental, systems-oriented perspective. In R. Lerner (Ed.), *The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pp. 761-805). New York: Wiley.

SOC Strategies and Related Variables

Hwee Sook Jang

Dep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o confirm the related variables with SOC strategies, the differences in SOC strategies according to age and sex,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attachment, personality traits and SOC were examined. For the first problem 200 college students and middle-aged adults and for the second one 505 college students were sampled. Analysis revealed three significant age main effects and one significant age×sex interaction effect. As attachments to mother, father and peer affected to the personality traits and personality traits affected to SOC significantly, the expected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personality traits and SOC were able to be confirmed.

Keywords: attachment, personality traits, SOC